

장자의 우언(寓言) · 중언(重言) · 치언(卮言)의 은유법

- I. 들어가는 말
- II. 왜 우언(寓言) · 중언(重言) · 치언(卮言)을
사용해야 할까
- III. 우언이란?
- IV. 중언이란?
- V. 치언이란?



김 정 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장

장자의 우언(寓言) · 중언(重言) · 치언(卮言)의 은유법

I. 들어가는 말

우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이성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머리와 머리(brain-to-brain)’로 이루어진다면 감성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가슴과 가슴(heart-to-heart)’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잘 구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중재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중재 당사자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일 때는 이성적으로 소구해야 하고, 감성적일 때는 감성적으로 소구해야 한다.

먼저 이성적 방식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자. 커뮤니케이션이 이성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개념이 정확해야 하고, 둘째, 논리가 체계적이어야 하고, 셋째, 문법이 정교해야 한다. 서양의 현대 수사학은 이런 바탕 하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서양식 현대 수사학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 법정이다. 판사와 검사, 판사와 변호사, 또 변호사들끼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이성적 방식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법조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편으로 삼는 법이 이성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체계가 이성적 체계로 구성되지 않으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법체계는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타적인(exclusive) 입장을 취한다.

이런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위 소피스트들이다. 물론 동아시아의 고대에도 이런 전통이 있다. 장자서에서 주인공인 장주(莊周)의 조롱거리 상대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혜시(惠施)가 동아시아에 있어선 최초의 소피스트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를. 혜시가 장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는 사실을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들 소피스트들은 개념, 논리, 문법의 각 차원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이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상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 『수사학(Rhetoric)』이라는 책이 대철학자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요체는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로서 정리될 수 있다. 우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선 먼저 ‘논리(logic)’를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정열(passion)’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할 만한 도덕적 ‘정당성(ethic)’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으로 소피스트들은 로고스만 요구한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넘어 파토스와 에토스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로고스만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말장난으로 그칠 수 있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규정하고, ‘소피스타’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파토스와 에토스란 개념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노력은 소피스트들의 논리를 깨부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고 보아진다.

흥미롭게도 소피스트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은 고대 동아시아에서부터 나왔다. 동아시아 고대 사상의 원조들인 공자, 노자, 맹자, 장자 등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된 인간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지가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다. 그래서 공자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나이 60의 이순(耳順)으로 설정했던 것이고, 노자는 그의 유일한 저서 『도덕경』 첫 머리를 유명한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¹⁾으로 장식했던 것이다. 이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고대 동아시아 사상가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핵심 관심사로 설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중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에 기울인 관심사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저술했던 『논어』, 『도덕경』, 『맹자』, 『장자』 등의 저서에서 보여준 서술방식이 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 점이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의 관점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단적으로

1)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름이 아니다.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서양고대 사상가들이 ‘논리적’인 것에 기초해서 서술했다면 공자, 노자, 맹자, 장자는 논리적인 것을 넘어 감성적인 서술 방식까지 동원했다. 그 결과 ‘가슴과 가슴(heart-to-heart)’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점이 동아시아의 여러 고전들이 2천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장자의 서술방식은 이 중에서도 압권이다. 그래서 장자서는 중국 최고 철학서 중의 하나로서 문학서의 관점에서도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II. 왜 우언(寓言) · 중언(重言) · 치언(卮言)을 사용해야 할까

장자서를 읽다 보면 “아하!”하고 자신도 모르게 탄복의 소리가 튀어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장자가 동원한 은유들이 우리들의 가슴에 그대로 꽂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인문학적 힘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인문학적 힘이란 무엇보다 중언 · 우언 · 치언이라는 은유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장자가 말하는 중언 · 우언 · 치언은 무엇일까? 『장자』 「천하(天下)」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치언으로서 늘어 놓고(以卮言爲漫衍)
 중언으로서 믿게 하고(以重言爲眞)
 우언으로서 그 의미를 넓힌다(以寓言爲廣)

치언(卮言)을 변화무쌍한 표현방법으로 삼았고, 중언(重言)을 입증의 증거로 선택했고, 우언(寓言)을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치언이란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삶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면 중언은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성인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표현이며, 우언은 재미있는 우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치언이 저절로 자신의 흐름을 찾는 말이라면 중언은 사람들이 참된 것이라고 여기는 말이며, 우언은 적용 범위가 넓은 말에 각각 해당한다. 장자가 터무니없는 언설이나 황당한 발언, 또 방자한 말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치언 · 중언 · 우언이 지닌 이런 성격 때문에 큰 무리가 있지 않았다고 본다.

장자가 우언(寓言)·중언(重言)·치언(卮言)의 은유법을 사용한 것은 어떤 언어이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완전한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나아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어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자는 중언으로 골격인 뼈를 형성하고, 치언으로 부연 해설하면서 살과 근육을 입히고, 우언으로 교설에다 생기를 돌게 하기 위해 숨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장자란 인물은 어떤 권위에 입각해서 자신의 확설을 일방적으로 설파하지 않고 그 대신 상대방의 수준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 애써 노력했던 정신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언(寓言)·중언(重言)·치언(卮言)의 은유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장자의 노력은 커뮤니케이션을 몇 단계 획기적으로 올려놓았다. 그것은 ‘머리와 머리(brain-to-brain)’로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슴과 가슴(heart-to-heart)’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까지 연장시켰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장자서가 중국 최고의 문학서라는 평가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통도 ‘머리와 머리’를 넘어 ‘가슴과 가슴’으로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법적인 판단이라면 ‘머리와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하지만 소통을 통한 중재라면 그것만 갖고선 부족하다.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질 때 참된 중재가 가능해진다.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Ⅲ. 우언이란?

우언(寓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자. 장자는 우언이란 동물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성립하는데 열에 아홉일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고 말한다. 우언은 무엇보다 바깥의 것, 즉 바깥의 어리석은 행동을 빌려 논증하는 표현방식이다. 물론 ‘바깥의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안의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우언이란 ‘안의 것’을 등장시키지 않고, ‘바깥의 것’만 등장시켜 소통하는 표현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제 자식의 중매를 설 수 없는 것은 제 자식을 칭찬하는 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이다. 즉 자식이 훌륭하더라도 이를 아버지가 칭찬하면 사람들이 좀

처럼 믿으려 하지 않아서이다. 여기서 ‘바깥의 것’은 다른 사람을, ‘안의 것’은 아버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남의 입을 빌려 자신을 좋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물정을 따르는 방식인데 이는 일종의 기교에 해당한다. 이런 기교는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같으면 따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반대하면서 자기와 같은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할 수 있다.

우언은 열에 아홉인데 바깥의 것을 빌려 논증하는 것이다.

가령 아버지가 제 자식의 중매를 서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칭찬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으면 따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반대한다.

자기와 같은 것을 맞다고 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한다.

- 『장자』 「우언」 -

이와 비슷한 우언은 「추수(秋水)」에 등장하는 거북이에게 출랑거리다가 혼 줄이 난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무너진 우물 안의 개구리는 난간 위에 선 갱충갱충 뛰놀며, 우물 안의 깨어진 벽돌 끝에서 푹 쉬고, 물 위에 엎드려선 두 겨드랑이를 물에 찰싹 붙인 채 턱을 들고서는 이런 즐거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자랑하자 동해에 사는 거북이 그 말을 듣고선 정말인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왼발이 들어가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이미 우물에 짝 낄 정도로 우물 안이 작았다. 거북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나선 천리 길도 동해바다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홉 번이나 홍수가 났어도 바닷물이 불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동해에 사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깜짝 놀라 그만 얼이 빠졌는데 이는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즉 장소에 구애된 개구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우언이다.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공간(장소)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미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편벽된 선비에게 도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장자』 「추수」 -

「제물론(齊物論)」편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는 대표적인 우언에 해당할 것이다. 원숭이 주인이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석 되, 저녁에 녀 되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원숭이가 모두 화를 내자 주인이 곧바로 아침에 녀 되, 저녁에 석 되 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더니 원숭이가 모두 기뻐 날뛰었다고 한다. ‘조삼모사(3+4)’나 ‘조사모삼(4+3)’이나 그 표현만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원숭이는 두 표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기쁨과 노여움을 동시에 보였다. 오히려 원숭이 주인은 실질에 있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을 굳이 지적하지 않고서 원숭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랐다. 이는 ‘있는 그대로를 따르는’ 인시(因是)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장자는 원숭이 주인의 여여자연(如如自然)하고, 태연자약한 삶을 시비를 조화하면서 ‘자연스런 가지런함(天鈞)’에 머무는 성인의 자세에 비유한다.

그런데 우언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동물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으면서 거기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립적인 인물, 혹은 대립적인 사상들 사이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이런 대립의 진실성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언이라는 표현방식에선 대립이 저절로 사라지고 마는데 대립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이 ‘도는 하나로 통한다(道通爲一)’는 노자와 장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IV. 중언이란?

근엄하고 무거운 글인 중언(重言)은 열 가운데 일곱으로서 우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그래도 장자는 우언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중언은 나이가 많이 든 성인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논쟁을 그치게 하는 표현방법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 말이라면 사람들은 대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자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처리하는 근본 원칙과 그 실현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공연히 나이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참된 연장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래서 연장자이면서도 덕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의 도를 잃은 자이고, 사람의 도를 잃은 자는 ‘진부한 사람(陳人)’이라고 장자는 규정한다.

열 가운데 일곱인 중언은 논쟁의 말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 말이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만 들었지 일을 처리하는 근본 원칙과 그 실현 방법이 없이
 공연히 나이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참된 연장자가 아니다.
 연장자이면서도 덕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의 도를 잃은 자이고, 사람의 도가 없는 자는 진부한 사람이다.

- 『장자』 「우언」 -

그런데 중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언과는 정반대의 표현방식이다. 우언은 바깥의 것을 빌려 논증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중언은 자신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언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의탁,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법인 차중(借重)에 가깝다. 그러므로 중언에는 우언과 달리 장난기란 눈곱만치도 있을 수 없다. 차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덕망과 학식을 고루 갖춘 나이 많은 어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장자가 살았던 전통적 사회에서는 경험에서 지혜가 우러나오기에 중언이 자연스럽게 먹혀들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나이나 경험이 곧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란 주로 나이와 연관이 있어서이다.

중언은 장자서에서 특히 내편 「인간세(人間世)」에 많이 등장한다. 장자는 「인간세」에서 공자가 행한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 중언을 활용한다. 공자는 제자인 안회(顏回)에게 “덕은 명성을 드러내는 데서 파괴되고, 지식은 다툼 가운데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명성은 서로 충돌하고, 지식은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기에 이 두 가지는 일종의 흉기로 자신들의 행위를 결코 훌륭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자가 이런 식으로 중언을 사용한 것은 안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공자가 생각하기에 안회는 덕이 중후하고 신의가 깨끗하지만 아직 남의 기분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명성을 다투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서이다. 그런데도 안회는 인의(仁義)나 법도(法道)를 군주 앞에서 기를 쓰고 말할 텐데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추함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것이기에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남으로부터 해를 돌려받기에 안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중언으로 안회의 행동을 누르고자 했다.

“공자가 들은 바를 말씀 드린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증언도 「인간세」에 가끔씩 등장한다. 교린(交隣)이란 가까우면 신의로써 맺어지고, 멀면 말로써 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말로써 진심을 보여주는 경우 양 쪽 모두를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들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양 쪽이 모두 기쁠 때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 지나치게 많아서이고, 양 쪽이 모두 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헐뜯는 말이 지나치게 많아서이다. 그래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간에 지나친 말은 망령된 말이고, 또 망령된 말은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말을 전한 자가 결국에는 재앙을 당한다. 옛날 『법언(法言)』이라는 책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지 말을 부풀려서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만 자신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장지는 말은 풍파(風波)이고 행동은 득실(得失)인데 풍파는 쉽게 변화하고 득실은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편파적인 논리가 분노를 폭발하는 도화선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덧붙인다.

「인간세」 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증언은 ‘마음의 비움(心齋)’에 관한 공자의 설명일 것이다. 심재(心齋)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안회에 대해 공자는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통일해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듣도록 하라고 주문한다.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에 맞추어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외물이 등장하고, 지식이 축적되고, 고집이 생겨난다. 반면 기는 텅 비어서 모든 대상에 부응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빈 채로 사물을 기다리기에 어떤 욕망, 고집, 편견 등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 노닐면서도 세상과 충돌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심하게 변화에 맡길 수가 있다. 바로 이 상태가 심재로 오로지 도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이 텅 빈 곳에 머물 수 있다. 이처럼 장지는 심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증언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도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V. 치언이란?

마지막으로 치언(卮言)은 국자로 퍼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무심한 말로 해석된다. ‘치(卮)’는 술그릇의 일종이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에 한 말은

거의 계산 없이 직접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무심한 말이란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하는 말과 같을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대체로 따지거나 계산하지를 못한다. 이 때문에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효용적 가치마저 지닐 수 있다. 이것은 치언이 ‘천수를 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치언에는 진실된 것이 더 많고, 거짓이 더 적다. 마음속에 내세우는 것이 없고, 시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에 이를 끝없는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탁월한 이야기꾼의 경우 치언을 잘 활용해서 이야기에 살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갖다 붙여 말을 부드럽게 이끈다. 마르지 않은 샘에서 끊임없이 물을 퍼내듯 장자의 도도한 변설이 무궁무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치언을 잘 활용한 탓이다. 어찌면 치언이란 공자가 말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도 부자연스러움이 없다(從心所欲不踰矩)’는 70세의 경지에서 내뱉는 말과도 흡사하다.

치언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말로서 시비를 초월해서 자연의 변화에 호응한다.
 끝없는 변화를 따르기에 천수를 다할 수 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만물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는 만물과 말은 통일되지 않고, 말은 통일되어 있는 만물과 통일되지 않는다.
 고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해야 한다.
 말을 하되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죽을 때까지 말을 하더라도 말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더라도 말을 안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장자』 「우언」 -

그런데 장자는 치언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치언이 자연의 분계(分界)로서 시비를 조화시키는 언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자는 치언으로써 자기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자연의 분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소통은 인간 상호 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간의 소통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만물의 모든 씨앗은 그 모습이 같지는 않지만 서로 전승하면서 처음과 끝이 고리를 이루고 있어서 이를 하늘의 물레라고 한다. 하늘의 물레란 하늘의 분계인 천예(天倪)를 의미하는데 천예란 저절로 그러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자연의 분계와 마찬가지로 뜻으로서 해석 된다. 장자에 따르면 하늘의 분계에서는 시작과 끝이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순환하기에 시작과 끝이 어디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장자는 치언으로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자연의 분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길도 막연하다고 말한다.

치언이 날마다 생겨나서 시비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오래도록 계속되겠는가? 천지의 만물은 각기 모두 종류가 다르고, 형체가 다르므로 서로 이어가며 변화하기 마련이다. 처음과 끝이 고리 같아서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다. 이를 하늘의 조화라고 한다. 하늘의 조화란 시비를 초월하여 대자연과 하나가 됨을 말한다.

- 『장자』 「우언」 -

치언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잠이 들면 꿈을 꾸어서 마음이 쉴 새가 없고, 깨어나면 육체가 활동을 시작하기에 또다시 쉴 새가 없다. 또 이들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날마다 다툼질로서 속을 썩이고 마는데 부드러운 표정 속에 간교함을 감추고, 말 속에 함정을 파 놓고, 또 속마음을 감춰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만 놀라도 안절부절 못하고, 크게 놀라면 기절까지 한다. 이들이 쏘아대는 말이 활의 시위를 떠난 활 같다는 것은 상대의 허점을 틈타 옹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굳세게 지킨다는 것이 마치 맹서를 하듯 한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치 가을과 겨울처럼 시들어 가는 것은 날마다 참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 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없다. 이들이 마치 끈으로 뽕뽕 묶듯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그들이 늙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마음은 다시 되살아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무심한 말이 치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가슴에 깊숙이 와 닿는 어떤 예리함이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자의 치언을 마주할 때 마다 “아하~! 그렇구나”하는 감탄의 소리가 절로 난다. 「제물론(齊物論)」편 서두를 장식하는 ‘대지의 통소 소리(地籟)’만 해도 그러하다. 바람을 ‘대지의 기(氣)’에 비유한 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바람이 일었다 하면 온갖 구멍들이 성내 부르짖는다는 비유는 무심한 상태가 아니면 생각해 낼 수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산림 속에 백 아람이나 되는 나무에 뚫린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마치 코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술병 같고, 술잔 같고, 절구 같고, 연못 같고, 동굴 같아서 거기에 바람이 부딪히기만 하면 울기 시작해서 마치 쿵쿵 흐르는 소리, 썽썽 나는 화살 소리, 나직이 나무리는 소리, 호호 들이키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울부짖으며 곡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슬피 흐느끼는 소리들을 낸다. 이런 표현들은 그야말로 치언의 극치이다. 왜냐하면 ‘대지의 통소 소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바로 ‘사람의 통소 소리(人籟)’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장자는 ‘대지의 통소 소리’라는 치언을 통해 ‘사람의 통소 소리’의 덧없음을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게끔 말하고 있다.